

‘2024 순장블레싱’

순장영성수련회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리더십 1,800여 명 참석,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519명 임명

‘2024 순장블레싱(순장영성수련회)’이 3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순장블레싱’은 온누리교회 순장 이상 리더십들을 격려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섬김과 헌신을 독려하는 축제다. 국내 11개 캠퍼스 온누리교회 리더십(장로, 공동체 총무, 다락방장, 순장)이 총출동한다. 이날 리더십 1,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519명(신임 순장 400명, 신임 다락방장 119명)이 임명장을 받는다.

2024 순장블레싱은 공동체 특순,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대표기도, 성도의 교제, 박인숙 권사 간증,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지, 순장 격려 영상, 패널토의, 점심식사(바베큐 파티) 및 이벤트, 오보규 장로 OGP(나눔 중심의 소그룹 성경공부) 소개, 강신익 장로 공동체성경읽기 소개, 노규석 목사 ‘로잔운동과 교회의 사명’ 강의 및 중보기도,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식, 온누리 순장 어워드(AWARD), 순장 선서, 기도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온누리 순장 어워드에서는 최장기 순장상(가장 오랫동안 쉬지 않고 섬긴 순장), 최다산

순장상(분순을 가장 많이 한 순), 기리기 순장상(가장 먼 거리를 이동해 순을 섬긴 순장), 감동 순장상(공동체에 모범이 되며 많은 성도에게 감동을 준 순장), 최고령 순장상을 시상한다.

순장블레싱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개인 텀블러를 꼭 지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행사 당일 교회주차장은 3인 이상 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차량은 인근 유료 주차장(동작대교 밑 공영주차장, 신동아쇼핑센터, 한강시민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비용 본인 부담)을 이용해야 한다.

이촌역(4번 출구)에서 서빙고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30분,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10분까지 운행한다. 어린 자녀들(36개월~10세)을 돌보는 탁아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빙고 자모실(36개월 미만, 부모님 동반), 본관 꿈터(36개월~초등 3학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탁아실을 운영한다.

문의: 02-3215-323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진은 지난해 순장영성수련회 ‘영혼을 돌보는 순장’

러브소나타 효고 ‘회복’

5월 15~16일 고베 문화홀 대홀

러브소나타 효고가 오는 5월 15~16일 ‘회복’ (행 3:20)을 주제로 고베 문화홀 대홀에서 막 오른다. 5월 15일(수) 고베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이기원 목사 ‘회복’, 다카미자와 에이코 목사 ‘선교’를 주제로 강의한다. 같은 날 오후 7시 고베 문화홀 대홀에서는 가스펠 나이트가 열린다. 청소년 사역자 스즈키 마사야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웅기장이, LOVE OBI, 이삿재팬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5월 16일(목) 오전에는 고베 메리켄파크 오리엔탈 호텔에서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 일본 참의원 가네코 미치히토 목사가 강의한다. 러브소나타 ‘효고’ 집회는 오후 7시 고베 문화홀 대홀에서 막 오른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온누리 사랑챔버 오케스트라, 조혜련, 루나, 범기,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배재철, 크룩스, Lalo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집회 실황을 온누리교회 및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러브소나타 효고에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2월 24일(토)부터 러브소나타 홈페이지(lovesonata.org)나 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화(02-570-7415)로도 신청할 수 있다.

‘효고현’은 일본 간사이 지방에 있는 주요 항구 도시다. 오사카, 교토와 함께 일본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 역할도 하고 있다.

문의: 02-570-7415

/ 홍하영 기자

강동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강동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았다. 2월 25일 일요일예배(1~4부)를 창립 감사예배로 드린다.

강동온누리교회는 2008년 2월 24일 국내 8번째 온누리교회 캠퍼스로 창립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준호 목사는 “16년 동안 강동온누리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워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강동온누리교회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당회

일시: 3월 2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안간: 결산보고, 감사보고, 평남노회 청원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 장로

제직회

일시: 3월 3일(주일) 2배예배 후
안간: 결산보고, 감사보고, 평남노회 청원
대상: 모든 제직

공동의회

일시: 3월 3일(주일) 3부예배 후
안간: 결산보고, 감사보고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

3월 31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202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이 3월 31일(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발생시킨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인하고, 플라스틱 줄이는 실천을 한다.

이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는 ‘성찰하기’와 ‘실천하기’에 참여하면 된다. 2월 14일(수)부터 3월 7일(목)까지는 ‘성찰하기’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인한다. 개인과 가정에서 발생시킨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면 된다. 3월 8일(금)부터 3월 30일(토)까지는 ‘실천하기’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실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한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다음 사진으로 찍어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4월 7일(일)까지 ‘성찰하기’와 ‘실천하기’

기간에 찍은 사진을 간단한 소감문(A4 한 장 이내)과 함께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제출하면 온누리교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와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차세대 그림 대회 및 전시회도 개최한다. 4월 14일까지 창조질서 회복 관련 A4용지 한 장 크기의 그림을 그려서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그림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전시한다.



<바이 바이 플라스틱 E-BOOK>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미국 역사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거짓으로 음모를 꾸민 일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때 백악관 고문이었던 척 콜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 일을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10명 남짓의 참모들이 그 거짓을 꾸미고 나서 조사가 시작된 지 두 주가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위협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도 아니었고, 또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지킬 수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쓴 <광세>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한 것처럼 주장하고, 그들의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주장을 무너트리는 것이 제자들이 받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음모를 세웠다고 가정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라. 그 소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활한 것처럼 만들자고 모의해서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려가고, 잡혀가고, 핍박당하고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사실 이것은 거짓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이다. 사람의 근본은 너무나 약한 존재이다. 특별히 협박과 위협, 뇌물에도 약하다. 제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이후 기독교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자신들이 거짓으로 꾸민 일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고, 모두가 한결같이 거짓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국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권세와 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이 당시 최고 권력자들에게 잡혀가고 핍박을 받기 시작했을 때 있지도 않은 일,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 낸 거짓을 지키려고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한결같이 지켜 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제자들이 그 거짓을 지키는 데

성공했고, 그 이후 사람들도 그 거짓을 믿고 지키는 데 성공했고, 오늘 우리도 거짓에 기초한 일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진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회심의 물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물결

<사도행전> 4장에서도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에 의한 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를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가지 파동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려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 물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행한 기적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자 수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주로 인구를 성인 남자 수로 계산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는 것은 가족까지 합하면 적어도 1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적어도 5-8만 명 정도로 봅니다. 10만 명은 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가장 강력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회심의 물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물결이 첫 번째 파동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
진실을 가두는 사람들

둘째,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일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진실을 가두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이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성전에서 물려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성전 경비대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유대 율법상 재판할 수 없기에 하루를 넘겨 이들을 잡아 가두고, 그다음 날 긴급하게 대제사장들이 소집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입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세례 요한 때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다윗 왕국 시대부터 사도의 후예들이 이어서 맡게 되어 있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최초로 로마 총독에 의해 임명된 대제사장입니다. 역사적 정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치적이었으면 로마 총독의 신임을 받아서 임명되었을까요? 로마법을 유대에도 그대로 적용한 시대가 바로 안나스 때부터입니다. 매우 나쁜 의미의 정치적인 인물이고, 로마 정부의 하수인처럼 일했던 사람입니다. 안나스의 다섯 아들도 대제사장이 됩니다. 역사적 정통성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으로 대제사장 가문이 된 사람들입니다.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은 안나스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먼저 불러다 심문했습니다. 현직은 가야바이지만 실제적인 힘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안나스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는 그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이 사유화하고, 유대 사회를 부정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인물들이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처럼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진실을 가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제사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왜 허가 없이 가르치느냐?”고 심문합니다.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왜 허가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합니다. 겉으로는 법을 따지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궁색한 질문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어떤 압력과 변화도 진실은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십시오.”

절대로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선한 일 아니냐? 견지 못한 이를 견제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당신들은 그것을 비난하느냐?”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옆에 견지 못했다가 견제된 장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알던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했으니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하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파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다시 불러서 위협하면서 명령을 하자.”

보통 유대 사람이라면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권력을 알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라도 “알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실제 일어난 일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과 진실을 가두려고 불의와 불법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가두려는 이유

그들이 왜 진실을 가두려고 했을까요? 첫째, 진실이 전해지면 자신들의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의 불의함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군병들에게 돈을 쥐서 제자들이 훔쳐 갔다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 모든 일이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그들의 권력과 위치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둘째, 진실이 전해지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이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이권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판매대를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성전에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성껏 염소든 송아지든 키운 것을 제물로 드리려고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감시관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성전에서 파는 제물들은 흠이 있는데도 무조건 합격 판정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러니 누가 힘들게 가져 오겠습니까? 제사는 드려야 하고,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성전에서 사야 도장을 찍어주니까 그것이 관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부정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뒤집어엎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호통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없다

두 사도가 진실을 가두려는 이들에게 굴하지 않고 전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12절을 보면, 두 번씩이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반복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부정한 일들을 들춰내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이름이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하고, 궁극적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산헤드린 공회의 부정부패를 침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원화, 다종교, 다문화 시대에 이 말씀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가 덮어둬야 한다. 타 종교를 전도하는 것을 이제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화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공격합니다. “왜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로 혼돈스럽게 할 때 사람들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점점 위축됩니다. 그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두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꼭대기 올라갈 때 한 길만 있지 않고 여러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말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길이 산꼭대기로 갑니까? 가다 보면 골짜기에 빠지고,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모든 길이 산꼭대기로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는 어떤 시각장애인 여섯 명이 큰 코끼리를 두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붙잡았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상아를 붙잡고, “코끼리란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느 인도왕이 보고 부분만을 보고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부분적인데, 어떻게 그것을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화를 들을 때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절대 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부분적인 것을 보지만, 그 모든 것을 보는 왕이 그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왕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분적인 것만 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짓된 이념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과학에도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와 모든 일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견지 못했던 사람같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빼내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의 결박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죄 짐을 담당하신 구원의 길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철학, 사상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확신했기에 모든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 속에서 전한 담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19~20절).

두 사도의 담대함은 교만에서 나온 주장이 아닙니다. 겸손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압력과 변화도 진실은 가둘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가두는 경우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압력과 변화도 진실은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재물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즐거움

한국에서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이며,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해야 한다. 통장 잔액은 1억 원 이상 보유하면서 해외여행은 1년에 1회 이상 다니는 정도다. 반면 프랑스에서 이야기하는 중산층은 1개 이상 자유롭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하나가 있을 것, 다룰 줄 아는 악기 한 가지가 있을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하나가 있을 것,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약자를 도우며 살 것 등이다.

2024년 대한민국 소비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도서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준이 판이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나라마다 그 사회와 문화를 규정하는 기준이 다양하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볼 때 한국의 기준은 돈과 외형적으로 보이는 고급스러움에 집중되어 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인품, 가정 교육, 사회적 관계와 영향력 등 다양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요즘의 흐름은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듯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로 견지하지 못하면 사회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는 ‘돈’이다.

풍족하든, 부족하든 생활을 유지하려면 돈을 버는 경제활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돈은 자산에 대한 보증 지불수단, 교환 도구 그 이상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가?’ 하는 것이 선악을 판단할 행동이 아니다. 돈은 도덕적으로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사람의 문제다. 오히려 돈은 선한 것의 도구지 선한 것 자체가 아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 세상이 도

16:13).

일단 돈을 삶의 주인으로 허락하면 ‘맘몬’이 되고, 그 맘몬의 탐욕이 다른 모든 것 위에 군림하게 되고, 사람의 무시무시한 주인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을 좋은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성도는 돈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받아들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실 때에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유함을 맡기신 것은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는 뜻이 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후 6:17-19).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물질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궁극적인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다. 하늘의 보화를 위해 땅의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즐거움과 진정한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라고 고백한 성도라면, 우리가 버는 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감이 마땅하다. 우리의 소득 중에 구별되어 드리는 헌금과 구제와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 역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으로 인해 이익을 빼앗아 가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의 관점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이다.



주성대 장로
(동대문중앙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물질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궁극적인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다.”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면 돈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사용될 것이지만,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다. 불행하게도 물질 만능주의와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돈은 중립적인 교환 수단에 머물지 않고, 세상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섬기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심각한 죄의 결과를 낳는 것이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

성경은 거둬난 성도인 우리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하셨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환경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역할

탈(脫) 플라스틱을 바라며

플라스틱은 생태계와 인간 건강, 기후변화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자원 순환성을 높이고 사용은 제한하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상아의 여러 쓰임 때문에 멸종할 위기에 처한 코끼리 등을 구하기 위해 160여년 전 초기합성 물질로 발명되었다. 생명을 구하는 의료기기부터 식품 보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주며 지구촌 곳곳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하지만 그만큼 치르고 있는 대가가 너무 크다. 해양폐기물은 연간 84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쓰레기의 40%는 육지에서, 60%는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80%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집계되고 있다. 이 바다 쓰레기는 해안선, 강어귀를 따라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해류와 외판섬, 해빙은 물론 바닷속 깊은 곳까지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플

라스틱인 과대 포장재와 일회용품의 경우는 그 배출량이 엄청나다.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이 약 1,100만 톤이나 된다. 앞으로 20년 안에 3배 이상 더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해안선 1m마다 50kg 플라스틱을 떠안아야 한다.

국제협약이 체결되어 국가와 기업까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면 과연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일 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법으로 규제 안을 마련한 것이다. 2014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주 전체에, 더불어 대형 소매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2016년 미국 뉴욕에서는 모든 일회용 봉지에 5센트의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메사추세츠주에서는 소매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 종이와 재활용 봉지에도 10센트의 비용을 물리는 조례가 통과됐다. 우리나라도 최근 대화용기를 이용하고, 친환경 생활용품물을 사용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

용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해 계속 사용하는 한 우리는 결코 플라스틱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꿀 수 없다.

비록 나 혼자일지라도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예: 일회용 페트병, 카페 일회용 플라스틱 컵, 비닐봉지 및 포장재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실천하고 실천해 보자. 친구와 가족, 더 나아가서는 개인 SNS에 관련 포스팅을 업로드하고, 도전을 지속하면 주변에도 변화를 이끌어내며 확산될 것이다. 일회용품 중에서도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사용이 가능한 대화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정 내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음식 및 과일, 채소를 포장하는 ‘식품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 최선을 다해 실천해 보자. 개인과 가정을 넘어 기업 단위 플라스틱 사용과 제품 생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플라스틱이 계속 생산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어 경종을 울리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보자. 매년 더 증가하는 해양 폐기물 플라스틱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가 크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해결책이 없지 않다고 말한다. 단순한 실천으로는 어렵겠지만, 꼭 필요한 것 외에 대체할 재료가 있는 것이라면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 시장에 영향을 주고, 다른 이들의 행동에도 변화를 일으켜 낸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들이 높은 의식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위기로 인정해야 한다. 곳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실험을 하고, 플라스틱 제품 생산 재설계 및 재사용을 위한 기업의 약속을 받아낸다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몸처럼 바닷새도, 물고기들도 태초에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시 누리게 하는 이웃사랑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내딛기를 소망한다.



유미호 대표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다시 말씀과 가까이!

3월 4일부터 ‘공동체 성경읽기’ 시작! 새벽기도회, 개별 모임, 순에서 공동체 성경읽기!

온누리가 다시 말씀과 가까워진다. 3월 4일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공동체 성경읽기’를 시작한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공동체 성경읽기’다. 첫 번째 공동체 성경읽기에서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지난번 성경 읽기가 개인 중심의 성경 읽기였다면 이번에는 그 꿈과 비전이 확대되어 새벽예배와 개별 모임, 순과 연결하는 ‘삼박자 공동체 성경읽기’다.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를 장려하고, 교회 안에 함께 성경을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며, 더 나아가 개인과 일터,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물들이는 강력한 성경 읽기 운동(movement)으로 비상하는 게 그 목표이자 포부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삼박자 공동체 성경읽기는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 ‘공동체 성경읽기 모임’ ‘순 공동체 성경읽기’로 구성된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는 3월 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를 공동체 성경읽기로 드린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 30분~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5분 찬양, 15분 공동체 성경읽기, 5분 메시지, 5분 합심기도 등의 순서로 예배가 이어진다. <우리말성경>으로 친구와 함께 읽기를 할 예정이다.

‘공동체 성경읽기 모임’은 소규모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한 시간 성경 읽고, 또 한 시간 신앙 서적 읽고, 식사를 함께한다. 공동체 성경읽기 모임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 성도가 성경을 혼자 읽다가 흥미를 잃고 좌절하여 그만두게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혼자 성경 전체를 읽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모임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읽고, 이를 보완할 여러 신앙 서적을 읽으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함이다.

우선, 공동체 성경읽기 모임을 만들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먼저 서빙고온누리교회부터 시작하고, 다른 캠퍼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일의 추진을 위해 구성된 사역팀(담당 목사 변대섭, 담당장로 강신익, 김영환)에서는 시니어들이 영적 리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과 동행하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규모가 클 필요도 없고 읽는 기간도 없다. 성경 읽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 성경읽기 모임의 대상은 성경 읽기에 관심 있고, 평일 오전 시간에 참여 가능한 모든 성도다. 공동체 성경읽기 모임은 평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들으며 읽기(40분)와 나눔(한 명씩, 총 20분), 신앙 서적 들으며 읽기(30분)와 소그룹 나눔(30분), 그리고 한 시간 식사 교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공동

체 성경읽기 모임은 공동체 일정과 같이 학기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순 공동체 성경읽기’는 개인적 성경 읽기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며, 순 안에 성경 읽기를 강화해 말씀의 영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3월 4일부터 시행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 단위로 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해서 공동체 성경읽기 링크를 공유한다. 행정적 공지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 대화방과 별도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둘째, 유튜브 ‘공동체 성경읽기’ 채널에서 그 날짜의 성경 읽기를 시청한다. 링크 공유는 누구든지 먼저 그 날짜의 성경 읽기에 접속한 사람이 한다.

셋째, 성경을 읽으면 공감 표시(하트, 체크 등)나 은혜받은 문장이나 짧은 묵상 나눔으로 응답한다.

넷째, 다락방장이 각 순의 공동체 성경읽기 단체대화방에 참여해서 순장과 함께 그 날짜에 링크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이번 공동체 성경 읽기는 한시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QT와 함께하는 경건 훈련과 더불어 평생 성경 읽기를 지향한다. 각 공동체에서 TFT 혹은 사역팀을 조직해서 점진적으로 준비하도록 유도한다.

공동체 성경 읽기 사역팀 발족

공동체 성경읽기 운동의 중심에 새롭게 구성된 ‘공동체 성경읽기팀’이 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재훈 위임목사의 아이디어로 사역팀이 결성되었다.

강신의 장로는 한동대학교와 G&M글로벌 문화재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성경읽기가 주는 유익과 열매가 풍성한지를 직접 경험하였기에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말씀을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



넣어준 하나님의 영이 타락으로, 즉 죄로 인해 죽었던 것을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 속 하나님의 영은 육신의 아기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핌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의 영으로 쓰인 성경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으시므로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동체 성경읽기’ 모임의 유익 ‘만나고’, ‘듣고’, ‘읽고’, ‘나누고’

성경 읽기가 왜 좋고, 왜 필요한지를 논할 이유가 없다. 크리스천에게 성경 읽기(말씀을 가까이)와 기도(하나님과 가까이)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나고’, ‘듣고’, ‘읽고’, ‘나누다’는 관점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의 유익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누군가와 만날 수 있다. 신앙생활은 혼자할 수 없고, 신앙은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다. 혼자서 성경통독을 해 본 사람은 안다. 그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기 힘든 일인지를 말이다. 그러나 누군가와 만나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 달라진다.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자신감과 도전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말씀을 듣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롬 10:17)라고 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 오디오 성경을 활용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더욱 효과적이다.

셋째, 읽는다. 성경책만 읽는 게 아니다. 하

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신앙 서적 등도 함께 읽는다. 강신의 장로에 의하면 크리스천 CEO포럼에서도 시편으로 기도하고 신앙 서적을 읽었는데, 그 모임 자체가 풍성해지고, 신앙 성장에 도움이 컸다고 한다.

넷째, 나누다. 읽은 내용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삶도 나누다.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신앙 성장과 변화가 개인에서 교회와 사회로, 더 나아가 국가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차세대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끌어내는 기반이 될 것이다.

곧 새봄이 온다. 만물이 움트고, 생명력이 돌아난다. ‘공동체 성경읽기’가 새봄처럼 싹을 피우고 잘 자라나기를 소망한다. 우리 모두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함께 성경을 듣고, 읽고, 나누면서 말씀으로 살아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문의: 02-3215-3239(공동체본부)

구성	내용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	3월 4일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 30분~7시 비전홀 5분 찬양, 15분 공동체 성경읽기, 5분 메시지, 5분 합심기도
공동체 성경읽기 모임	대상: 성경 읽기에 관심 있고, 평일 오전 참여 가능한 성도 함께 성경을 들으며 읽기(40분), 나눔(한 명씩, 총 20분), 신앙 서적 들으며 읽기(30분), 소그룹 나눔(30분), 식사 교제(60분), 학기제 운영
순 공동체 성경읽기	순 단위 SNS 단체대화방 개설, 공동체 성경읽기 링크 공유 유튜브 ‘공동체 성경읽기’ 채널에서 그 날짜 성경 읽기 시청, 성경 읽고 공감 표시(하트, 체크 등), 문장이나 짧은 묵상 나눔 다락방장이 각 순 공동체 성경 읽기 단체대화방에 참여

2024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 3. 탈북민 선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꿈!

온누리교회 탈북민 선교 책임지는 '한누리통합팀'

2024년 온누리교회 선교는 '난민 선교'와 '이주민 선교', 그리고 '탈북민 선교'에 집중한다.

탈북민 선교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꿈을 꾸고 있다. 그 매개가 바로 '탈북민'이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경제적, 문화적, 외로움 등 탈북민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조차 크고 버겁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이 바로 '탈북민 선교'다.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사역이다. 온누리교회는 오래전부터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돕고 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김태희 성도(한터공동체)는 탈북해서 한국에 온 지 20년 정도 됐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온갖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겪는 차별이 괴로웠다. 그래도 교회(한터공동체)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

“한국에서 직장 구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배웠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



서빙고 한터공동체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업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차별과 네 명의 자녀를 교육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교회(한터공동체)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터공동체에서 탈북민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탈북민 자녀 교육을 성심껏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송바울 팀장(한터공동체)은 탈북민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 차이'와 '소통'이라면서 탈북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

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본질적으로 돕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민들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겪는 어려움이 엄청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른 점이 정말 많습니 다. 북한에서는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 와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한국어인데도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차이와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탈북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탈북민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온누리교회에는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고, 그들과 친구 되는 사역팀이 있다. 바로 '한누리통합팀'이다. 한누리통합팀에서는 '한누리사역'과 '하나원사역'을 하고 있다.

한누리통합팀에는 5개 탈북민공동체가 소속되어 있다. 서빙고 한터공동체, 양재 하나공동체, 부천 한사랑공동체, 남양주 북사랑공동체, 대전 한누리공동체가 바로 그것이다. 각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성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훈련을 하고 있다.

하나원사역은 탈북민들과 가장 먼저 친구가 된다. 통일부 산하 정부 기관인 하나원에 소재한 하나교회와 연합해서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교육을 받을 때부터 사회 정착과 신앙생활을 지원한다.

문의: 02-3463-9686

사역칼럼



하성희 목사
(한누리사역,
한터공동체 담당)

한누리통합팀에서는 탈북민들이 복음 안에서 작은 통일을 이루고,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도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탈북민을 섬긴 지 올해 21년째다. 그동안 탈북민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에 따라 한누리통합팀에서도 탈북민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 6천 명가량이다. 전체 탈북민 70% 이상이 한국에 정착해서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 새로 유입되는 탈북민 비율보다 10년 이상 거주해서 정착한 탈북민 비율이 더 높다. 탈북 동기에 변화가 생겼다. 초창기 탈북 동기는 배고픔, 감시와 통제가 싫어서 등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나은 교육과 생활환경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이 탈북 동기로 바뀌었다.

매년 남북통일재단에서 탈북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다. 2015년 63%에서 2023년에는 79.3%를 기록했다. 이 수치를 보면 대부분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해서 자유를 누리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동안 한누리의 탈북민사역은 새로 유입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우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사역자의 헌신과 섬김 덕분에 탈북민 성도들이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체 밖에 있는 탈북민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다가가야 한다.

지난해 한 탈북민이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다. 한국에 친인척이 없는 고인의 장례는 시에서 운영하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합동 장례식으로 치렀다. 그 장례에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조문을 다녀왔다. 생전에 고인을 알고 있던 많은 탈북민이 조문을 와서 슬픔을 나누고 있었다. '만약 고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수 있었더라면...', '고인이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도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등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사도행전〉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걸인을 주목하고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로운 삶 이면에 있을 그들의 공허감과 외로움을 찾아내야 한다. 통일 선교적 관점에서 탈북민들을 수식하는 말이 있다. 바로 '먼저 온 통일' 그리고 '통일선교의 마중물'이다. 우리가 갈 수 없는 북한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탈북민들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 남과 북의 형제자매가 함께 예배하고,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도록 예비하신 것이다. 최근 먼저 온 통일을 맛보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탈북민교회가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국에 탈북민교회가 72개 세워졌다. 그중에서 북한 출신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가 63%나 된다. 탈북민교회가 계속 생겨나는 것은 함께 할 선교적 자원이 많아졌

다는 의미이고, 영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다.

한누리통합팀 하나원사역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탈북민교회들을 발굴하고, 동역하며, 지원하고 있다. 한누리사역에서는 탈북민교회들과 1다락방1사역으로 매칭해서 섬기고 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 탈북민 선교는 한국 성도들의 리더십으로 사역을 해왔다. 이제는 성숙한 탈북민 성도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동역하려고 한다. 서빙고 한터공동체에서는 올해부터 북한 출신 전도사에게 팀장 리더십을 부여하고, 순장과 부순장을 남북한 성도로 골고루 세웠다. 탈북민 성도들도 임직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탈북민은 멀리 있지 않은 우리의 이웃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동반자다.

성 어거스틴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이라는 말을 남겼다. 변하는 시대, 변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꾸는 유연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면서 통일 선교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이웃, 먼저 온 통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찾아라!

‘이주민 섬기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수원비전센터 박재두 장로와 이명화 권사 부부

〈온누리신문〉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찾아 나섰다.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주민을 돌보는 등 일상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성도들 말이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이주민을 섬기는 박재두 장로, 이명화 권사 부부(수원 온누리교회)다. 이들 부부는 수원역 근처에 ‘수원비전센터’를 차리고 이주민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가르치고, 법률 및 의료 상담 등을 지원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눠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수원비전센터에서 이주민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눠주는 박재두 장로, 이명화 권사 부부.

수원역 9번 출구로 나와 다섯 발자국 걸으면 좁은 골목길이 나온다. 그 골목길 끝에 ‘수원역전시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10)이 있다. 수원역전시장은 수원역 앞에 있는 오래된 시장인데, 큰 건물 하나가 시장을 이루고 있다. 수원역전시장의 명물은 단연코 지하에 있는 ‘다문화푸드랜드’다. 다문화푸드랜드는 2011년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개업했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현지인 요리사가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다.

수원비전센터, 이주민과 함께 울고 웃는다

세계 각국 문화가 공존하는 수원역전시장에서 박재두 장로와 이명화 권사(수원온누리교회) 부부를 만났다. 이들 부부는 수원역전시장 A동 2층에서 이주민지원센터인 ‘수원비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왕래가 활발해서 자주 접촉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이곳을 택했다.

수원비전센터 공간이 크지 않다. 5평 남짓한 방 두 개가 전부다. 그런데 이곳에 14개 국가에서 온 16개 종족이 매일 방문하고 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삶을 나눈다. 수원비전센터는 한국을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법률 및 의료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봉사자 30여 명이 연중무휴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수원비전센터는 2022년 1월 개원했다. 그 역사가 짧는데 벌써 이주민 120여 명(평일만 50

여 명, 주말만 70여 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수원비전센터가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다.

수원비전센터를 찾는 이주민들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불법체류자 등이다. 캄보디아에서 온 한 자매는 한국에서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두 자녀를 기르면서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수원비전센터는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의 도움을 받아 이 자매에게 쌀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캄보디아 결혼 이주 여성 자매는 한국에서 처음 만난 남편이 장애인이었다. 그와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에게도 장애가 있었다.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지고, 그 자매는 집에서 구박만 받다가 쫓겨났다. 얼마 전에 이 자매가 비자를 연장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 한 장로님의 도움으로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수원비전센터를 찾는 이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다. 박재두 장로와 이명화 권사를 비롯한 봉사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준다. 이주민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도록 돕고 있다. 무엇보다 이주민들에게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 덕분인지 수원비전센터를 찾는 이주민들은 박재두 장로와 이명화 권사 부부를 부모처럼 의지하며 따른다.

“이주민들이 밤낮없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수원비전센터를 찾아와도 마냥 기쁩니다. 이주민들이 친정 부모를 찾듯이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를 찾아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없이 다가

와 도움을 청하는 이주민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주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은퇴는 없다, 수원이 땅끝이다!

수원비전센터 벽면에 ‘은퇴는 없다, 수원이 땅끝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문구가 바로 수원비전센터의 비전이다. 세상일에는 은퇴가 있지만, 선교에는 은퇴가 없고, 수원이 땅끝이라는 생각으로 선교 열정을 불태우자는 의지를 담았다. 박재두 장로와 이명화 권사 부부의 삶도 그 비전대로 흘러가고 있다.

수원비전센터는 박재두 장로와 이명화 권사 부부의 오랜 기도제목이었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명화 권사는 선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할 때부터 박재두 장로에게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선교사 준비하세요”라고 말할 정도였다. 평생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 그러나 박재두 장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몸도 약해서 해외에서 현지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래서 아내의 선교 제안을 번번이 거절했다.

그런데 박재두 장로가 20여 년 전 온누리교회에 오면서부터 달라졌다. “선교를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故 하용조 목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야 한다는 온누리교회 비전이 그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다.

박재두 장로는 10여 년 동안 온누리교회 순장, 다락방장, 사역팀장 등으로 섬겼다. 그러면서 일상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많이 만났다. 함께 예배드렸던 순원들, 동고동락했던 팀원들, 늘 배우고 의지했던 리더십 등 많은 성도를 보면서 삶의 모든 자리가 선교지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박재두 장로와 이명화 권사 부부는 지난 2019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로이 품고, 장소가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 땅을 찾아온 나그네 ‘이주민’이었다. 하나님이 이들 부부에게 이주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이주민 선교에 도움을 주는 선배 사역자들도 만났다. 특히 오성연 장로(인천온누리교회)와 유해근 목사(나섬교회)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오성연 장로가 운영하는 ‘1클래스스쿨’ 수업에 참가해서 전국을 다니며 선교지를 탐방했고, 유해근 목사에게 이주민 선교를 배웠다. 그 후 꼬박 1년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나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수원비전센터를 개원했다.

박재두 장로와 이명화 권사 부부는 ‘이주민 선교사’라는 꿈을 날마다 새로 꾸고 있다. 수원비전센터에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고향에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더 많은 이주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수원비전센터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을 찾은 이주민들이 훗날 역파송 선교사가 되고, 대한민국 리더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원비전센터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과 이주민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수원비전센터 수업 및 예배 시간
1. 한국어 교실
평일반: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일요반: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오후 6시

2. 이주민 자녀 수업(수학)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 이주민 예배
이주민 한국어 예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태국어 예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찾습니다!
대상: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제보 및 문의: 메일(hha0@onnuri.org)
전화(02-6959-0001)

맛있는 말씀 해설

“...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막 11:12~14)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성경 말씀 중에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잘못된 것도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선뜻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 또는 ‘이성을 잃은 예수님’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화과나무는 유월절이 있는 4월부터 10월까지 다섯 번이나 열매를 맺는다. 첫 번째 무화과는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어서 팔 수 없는 열매다. 이것을 ‘과계’ (맛없는 무화과)라고 한다. 이 첫 번째 열매를 따내지 않으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주인은 반드시 열매를 따내야 한다. 이 열매를 배고픈 사람이나 나그네들이

먹어주면 오히려 고마운 것이다. 두 번째부터 열리는 열매가 ‘테에나’ (맛있는 무화과)다. 달콤한 열매가 열려서 시장에 팔 수 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4월에 열리는 ‘과계’ (맛없는 무화과)를 드시려고 한 것이다. 유월절이 4월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시려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앞만 무성했다. 13절을 보면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맛있는 무화과가 나오는 철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두 번째 열매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앞으로 남은 계절에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앞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없는 유대인들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며,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사실 열매가 없었다.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셨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막 11:17).

열매가 없는 것은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붙어있어야 한다. 붙어있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붙어있지 않으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에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지고 마르게 된다. 또한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붙어있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다. 음행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미술과 원수 맺음 등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갈 5:19~21).

열매는 옵션이 아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자연히 맺어지게 되기에 열매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 붙어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행복한 제자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신동식 목사
(평택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우리의 소망이신 승리의 하나님

2월 26일~3월 3일

〈요엘〉 2:1~3:21,

〈시편〉 42:1~44:8



목상포인트 1:

요엘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날이다. 그날에 마음을 찢는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

다. 반면 이스라엘은 회복의 은혜를 맛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거룩해진 예루살렘에는 이방인이 다시는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목상포인트 2: 〈시편〉은 크게 다섯 권으로 분류된다. 그중에서 올해 3월과 11월에 다루는 42~72편은 〈시편〉 제2권에 해당한다. 이번 주간 묵상하는 42~43편 주제가 비슷하고 동일한 후렴구를 담고 있어서 서로 연결되는 시로 본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과 불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한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 다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 〈시편〉 기자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 뵈기를 갈망한다. 그는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상하고, 원수와 대적자들의 비방으로 낙심하며 불안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리라고 다짐한다.

43편: 〈시편〉 기자는 불의한 자에게서 자신을 건지시기를 간구한다. 또한 빛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자신을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수금으로 찬양하겠다고 고백한다. 또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한다.

44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다른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자기 조상들에게 땅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셨던 옛일을 회상한다. 이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행하신 일이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자신들은 칼이나 활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겠다고 고백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웃을 찢는 것이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 (욥 2:13)를 기뻐하신다. 아침마다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정결함을 위해 힘쓰자.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 하기보다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잘 통과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자.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한 열방을 심판하신다. 불의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지 기준을 명확히 하자. ▶최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때는 언제인가? 탄식과 애통할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자. ▶나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에게 들려줄 신앙 간증을 기록해 보자. ▶활이나 칼이 승리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내가 의지하는 무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일의 영적 전쟁을 잘 치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건강을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는 지난해 1월 유방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말 난소암 진단을 받고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길이 두려웠지만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총 6차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 표적항암제를 2~3년 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현재 2차 항암치료까지 진행했는데 약이 독해서 근육통, 손발저림, 구토, 발열, 탈모 등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치료받을 수 있어서, 부작용들이 호전되고 다시 항암치료를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치료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아픈 저를 지켜보면서 걱정하고 있을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주시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6차까지 이어질 항암치료 과정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기도해주시고.

/ 박헌정 성도(가정사역공동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백만 명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낸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4년 만에 32.8% 급증했다. 20대가 19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일반 자살률에 비해 4배 높다는 통계가 있어서 오늘날 주요한 정신건강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나는 우울증이 아닌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고, 주변에서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을 보게 된다. 우울증은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단순하게 우울증을 믿음의 연약한 것의 결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치료 과

정에서도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나 의학적 치료 및 내적 치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늘 우울하고,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다. 불면증과 두통, 무력감과 패배감, 좌절감과 상실감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게 살기보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상실에서 벗어나라. 우울증은 그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대부분 우울증은 반응성 우울증이다. 대표적인 원인은 대상 상실이다. 인생에서 의미 있던 사람, 의존하는 대상을 상실할 때 우울증이 온다는 것이다. 돈을 의존하다가 상실하거나, 권력을 의존하다가 잃어버리거나, 다른 의존했던 대상을 상실하면 우울증이 온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놓아주지 못함으로

우울증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나 어떤 것을 상실하는 일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 우리에게 큰 괴로움을 준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찾아오셨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롬 5:8).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실의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울과 좌절에 빠졌던 하루를 회복할 수 있다.

둘째,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라. 우울증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가 자기 비하이다.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아무도 내게 관심 가져 주지 않아”,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으로 자신을 비하

하면서 우울해한다. 자기 비하 사고가 있으면 늘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네 안에 계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습 3:17).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하게 취급하지 않으신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스펙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최재윤 목사
(길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유연한 가족 규칙

가족은 함께 살면서 다양한 규칙을 정한다. 가족이 규칙을 갖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권위를 가진 부모가 가족 규칙을 정해서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다소 독단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가족의 의견을 묻거나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권위를 주장하는 부모가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자녀가 어릴 때라면 별다른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따르지만, 성장기를 지나면서 부모가 강요하는 가족 규칙에 반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암묵적으로 따라야 했던 가족 규칙과 충돌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는 경험도 할 것이다. 가족 규칙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원활한 소통과 사랑, 격려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 그런데 가족 규칙이 긍정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옥죄는 매우 불편한 기능을 한다.

건강한 가족이라면 가족 규칙을 세울 때 서로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자신의 가정을 회상해 보자. 가족 규칙을 정할 때 권위를 가진 부모가 당신의 의견을 물어봤는지 말이다. 어떤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의 의견과 주장을 비중 있게 반영하지 않는다. 부모는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고, 자녀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역할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가족 규칙을 정할 때 자녀들이 참여할 수 없고, 정해진 규칙

에 개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보되고 세워진 규칙은 가족의 건강성을 세우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가족 규칙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열어주는 게 유익하다. 가족 규칙을 세울 때 권위를 가진 주체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족 규칙을 함께

만, 지켜지지 않은 때가 있다. 게임을 한 시간 넘게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과 질책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모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하기 전에 자녀와 다시 한번 유연성을 갖고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다양한 이유로 자녀가 이 규칙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부부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다양한 규칙이 무너질 수 있다. “10시를 넘겨서 퇴근할 것 같

기억해야 한다. 부부가 세웠던 가족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된다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말이다.

건강한 가족은 규칙이 많지 않고, 유연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식의 규칙이 부부와 가족 관계를 힘들게 하지 않아야 한다. 규칙은 있으나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은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 규칙이 경직되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경직된 시각으로 가족을 통제하려 할 수 있고, 배우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 “남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 해!”, “첫째는 둘째에게 당연히 양보해야 해” 등 수많은 각인된 규칙들이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자신만의 기준을 내려놓고, ‘절대’와 ‘반드시’라는 이상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배우자와 가족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건강한 가족은 규칙이 많지 않고, 유연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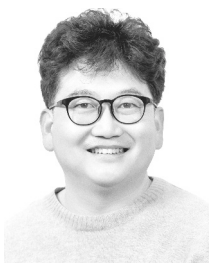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돼”라는 식의 규칙은 가족의 건강성과 개인의 건강성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가족 규칙을 세울 때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서로 동의해서 가족 규칙을 세웠더라도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게임을 한 시간만 하기로 규칙을 정한 가족이 있

으면 미리 연락하기”, “빨래는 빨래통에 넣기”, “자녀 훈계하기 전에는 미리 상의하기”, “자기 전에 감사기도 함께하기” 등 다양한 규칙을 갖는 부부가 있다. 애석하게도 어렵게 세운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세운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유연한 마음으로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 규칙은 관계를 옥죄는 게 아니라 부부와 가족을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가족 규칙은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을 숨쉬지 못하게 하는 울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섬교회 나들이'

오늘도 개척 중인 '풍도반석교회'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풍도는 부근의 섬들과 다르지 않게 복음의 씨앗이 심겼지만, 교회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많은 사역자가 부푼 꿈과 사명을 갖고 이곳에 들어와 교회를 설립하고, 신앙의 역사를 써 내려갔지만,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풍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섯 번째 사역자가 풍도 땅을 밟았다. 김정순 전도사가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방 한 칸 얻어 교회를 시작했다. 풍도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20여 년 지난 후의 일이라 반갑기도 했고, 여성 홀로 찾아온 것이라 처음에는 호의를 갖고 교회와 함께하는 듯 했다. 하지만 풍도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쉽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오해가 생기고,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김정순 전도사가 제 품에 지쳐 결국 제 발로 나갈 거라고 수군거렸다. 아니 그러기를 바랐다고 한다.

김정순 전도사는 섬 출신이다. 충분히 섬 목회가 가능하라며 자신 있게 풍도를 찾았

다. 쉽게 물러설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시련과 아픔을 마주해야 했다. 눈물의 기도와 탄식으로 시간을 채우면서 슬그머니 이 땅을 떠나려고 몇 번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나님,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이지요?"라는 김정순 전도사의 호소는 어느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 중에 천천히 김정순 전도사를 변화시키셨다. 스스로 쌓아 온 꿈과 자신감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목회 훈련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인도하셨다.

풍도 사람들은 섬 주변에 갯벌이 없어서 해마다 겨울이면 근처 도리도로 들어가 갯벌을 일구며 살았다.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겨우 움막을 지어 살아야 했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생활이었다. 그나마 극한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인 도리도는 풍도 사람들의 터전이자 보물창고 같은 섬이었다. 풍도 사람들의 정기적인 도리도 이주는 연중행사였다. 앞선 사역자들이 한동안 비어있는 섬에서 사역을 건디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김정순 전도사는 텅 빈 풍도에서 기도만 한 게 아니다. 작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도리도에 들어갔다. 풍도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함께하는

게 목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예배하고, 일상을 나눴다. 어느덧 풍도 사람으로, 풍도의 전도사로 인정받았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의 시작이 1983년이니 벌써 40년이 넘었다.

1988년 올림픽으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할 때 풍도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교회 예배당 건립이 시작된 것이다.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나?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큰 돌들을 모으고, 바다 한가운데서 모래를 퍼 올려 지게와 리어카로 옮기며 아름다운 돌예배당을 꿈꾸며 천천히 지어나갔다. 김정순 전도사는 예배당 건축을 기적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당시에는 작업 차량이나 건설 기계가 들어올 수 없었기에 곡괭이로 일일이 터 작업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바닥 전체가 큰 돌, 반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반석을 감싸면서 축대를 쌓아 올렸더니 자연스럽게 풍도의 으뜸 건물이 되었다. 반석교회는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풍도교회 앞쪽에 녹색 크로마키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이걸 누가 쓸까? 교회 학생이 필요해서 구입해 놓은걸까? 누가 여기서 콘텐츠를 만들고 아직 치우지 못한 것일까?'

나름 생각했는데, 김정순 목사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마련해 둔 것이었다. 김정순 목사는 그동안 낙도에 있다고 해서 실력과 영성이 낙오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펼쳐 왔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영상 편집까지 배워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보니 웹상에 풍도교회 카페, 풍도교회 포스트, 그리고 풍도 인터넷교회까지 있다. 교회 청년이나 다른 누군가가 만들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김정순 목사의 다른 사역이다.

김정순 목사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떠났다. 어릴 적 교회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섬을 떠났다. 각자의 이유로 섬을 찾는 이들이 있지만, 그저 지나가는 곳이지 정착하는 곳은 아니기에 늘 사역을 개척할 수밖에 없다.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카페를 조성하고,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 교회가 홀로 감당할 수 없으면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며 문화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기까지 풍도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 김정순 목사는 오늘도 반석교회를 개척 중이다.

두란노 신간

성경적 시간관리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
조던 레이너 저 | 두란노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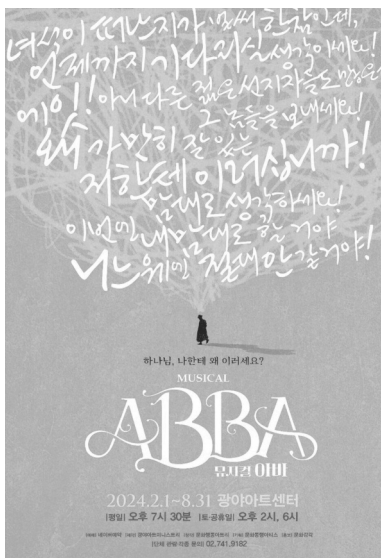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책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명령에서 나온 시간 관리의 대원칙 7가지를 소개한다. '말씀으로 시작한다', '하기로 한 일을 한다', '소음의 왕국에서 벗어난다',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생산적인 쉼을 누린다', '모든 서투름을 제거한다'가 바로 그것이다. 7가지 대원칙과 32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소개한다.

이 책에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성경적 시간 관리의 핵심이 담겨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시간 관리법을 실천하도록 도와준다. 성경적 시간 관리를 원하는 성도,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목적과 의미가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불만한 공연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뮤지컬 'ABBA:아바'

라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성경 속 이야기에 유머러스한 연출이 더해져 웃음과 감동을 선물한다. 말씀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전도대상자와 함께 시원한 웃음과 감동,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뮤지컬 'ABBA:아바'는 광야아트센터에서 상영 중이다. 티켓은 네이버에서 예매하면 된다. 평일 6만 원, 주말과 공휴일 7만 원이다.

뮤지컬 'ABBA:아바'는 성경 인물을 소재로 만들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와 탕자 이야기가 만나 그 감동이 배가 된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 선지자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다.

뮤지컬을 보는 내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니느웨 백성들과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다회용컵 사용을 위한
'해피해빗'

대한민국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 84억 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텀블러보다 연간 21배나 높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한다.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서 일회용 컵 폐기량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해피해빗(happyhabit)'이다. 해피해빗은 SK텔레콤의 'ESG 경영' 일환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ICT(정보통신기술) 솔루션을 활용해서 다회용 컵의 '공급-대여-수거-세척-재공급'으로 자원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친환경 서비스다.

해피해빗 다회용 컵은 '제휴 카페에서 사용-무인반납기 반납- 전문 세척장 세척-카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소비자가 음료를 구입할 때 컵 보증금(1,000원)을 지불하고,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코 포인트도 적립 받을 수 있다. 해피해빗 컵을 이용하려면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피해빗' 앱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사진은 지난 1월 진행된 풍당 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제작 발표 및 시사회.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CGN, 기독 OTT '풍당' 론칭 3주년

CGN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기독 OTT '풍당(Fondant)'(이하 '풍당')이 론칭 3주년을 맞이했다. 풍당은 지난 2021년 2월 15일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탄생했다. 현재 77개 오리지널 시리즈를 포함해 영화, 다큐멘터리, 키즈, 성경, 양육 등 3만 5천여 편의 기독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풍당' 가입자가 14만 5천 명을 넘어섰다. 이용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은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였다. 매일 20분씩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목표로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프로그램이다.

CGN은 풍당 론칭 3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를 지난 2월 15일(목) 선 보였다. '바울로부터'는 최종상 선교사와 배우 차인표가 이스라엘, 튀르키예, 키프로스, 그리스, 몰타, 이탈리아까지 바울의 전도 여정을 연대기순으로 따라가며 그 흔적을 생생하게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총 10부작으로 제작된 <바울로부터>는

매주 목요일 풍당에 업로드 된다. 최종상 선교사가 강의하는 '바울 심화 강의' 6편도 공개할 예정이다.

풍당 론칭 3주년 기념 이벤트 '풍당 속 숨겨진 캐릭터를 찾아보'도 한다. '풍당' 썸네일(thumbnail)에 숨어있는 캐릭터를 찾는 이벤트다. 3월 7일(목)까지 풍당에 접속해서 사전 안내된 캐릭터를 찾아 캡처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카카오톡 풍당에서 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라인커뮤니티 상반기 개강

3월 26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상반기 개강을 한다. 3월 26일(화)부터 6월 25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 참여가 어려운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체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임영광 목사(풍당제작본부장)가 기독 OTT '풍당'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대해 강의한다. 5월에는 보이는 라디오 '슬기로운 말씀 생활'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준 성도(부천온누리교회)는 "직업 특성상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온라인커뮤니티 덕분에 교제를 회복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온누리 호스피스학교 개강

매주 목 오전 10시 서빙고 비전홀

온누리 호스피스학교가 개강한다. 3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월 7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

온누리 호스피스학교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사별가족에 대한 이해와 동행' 등을 주제로 강의와 조별 모임 등이 이어진다.

계좌: 하나은행 573-910007-1504(예금주: 호스피스)
문의: 010-3412-7966

시니어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3월 13일부터 개강

서빙고와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가 개강한다.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주 동안 예배, 소그룹 나눔, 맞춤형 강의, 야외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서빙고 아이스쿨(schoolionnuri.org), 양재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서빙고는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시니어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80명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5만 원.

양재는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드림홀에서 열린다. 65세 이상 장년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2-3215-3533(서빙고) 02-570-7349(양재)

양재 새가족 명단

양재A 양재B 당지연 박지혜
양수연 김경애 박선재
장휘경 김성은 박정호

故 남상옥 장로 천국환송예배



故 남상옥 장로(강촌공동체, ㈜엘비아브노바 대표이사) 천국환송예배를 지난 2월 20일(화) 오전 8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유가족, 목회자, 친척과 지인, 온누리교회 성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故 남상옥 장로 천국환송예배는 박종길 목사 인도,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대표 기도, 장로합창단 조가(弔歌), 이재훈 위임목사 말씀, 유가족 추모 연주 및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故 남상옥 장로는 2010년 온누리교회 장로로 장립됐다. 당회운영위원과 차세대 대표장로 등으로 섬겼다. 미자립교회를 돕고, 해외 선교에도 앞장섰다. 지난 2월 17일 오후 4시 41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소천했다.

CGN 유튜브 구독자 70만 돌파 이벤트!

CGN이 유튜브 구독자 70만 명 돌파 기념으로 두 가지 이벤트를 한다. '70만 축하 댓글' 이벤트는 3월 30일까지 CGN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다음, CGN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70만 축하 영상'에 댓글을 남기면 된다. 구글폼(QR 참고)으로 댓글 캡처본을 제출하고,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구독자를 찾아라!' 이벤트는 CGN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에서 '특이한 구독 날짜' (예: 2022년 2월

22일 등)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 구독 활동 페이지에서 CGN 채널을 구독한 날짜를 캡처한 다음 구글폼(QR 참고)으로 캡처본을 제출하고,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문의: 02-3275-3309



축하 댓글 이벤트



구독자를 찾아라!

대학청년 연합 철야기도회 '4 OUR NATION'

2월 29일 오후 8시~ 3월 1일 오전 5시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 연합 철야기도회가 '4 OUR NATION'을 주제로 2월 29일(목) 오후 8시부터 3월 1일(금) 오전 5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학청년 연합 철야기도회에서는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나라와 민족', 김승수 목사(인천온누리교회) '다음세대와 가정', 최성민 목사(SNS청년부, 대청본부장) '교회', 온누리교회 선교사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서 할 수 있고, 선착순 1천 명에게는 현장에서 퍼즐 조각을 나눠준다. 참가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서 할 수 있고, 선착순 1천 명에게는 현장에서 퍼즐 조각을 나눠준다. 참가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참가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우크라이나 난민에 앰블런스 12대 기증

NGO 더멋진세상이 그린닥터스(국제의료봉사단체) 등과 연합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앰블런스 12대를 기증했다. 4대는 지난해 6월 긴급하게 필요한 곳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8대는 올해 2월 말 폴란드 적십자가 우크라이나 적십자

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앰블런스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2월 세례자

■서빙고	김지오 230923	정구완 570128	이규연 041023	박예함 040719
김희혜 940513	김선준 050923	최진희 710426	입교 강 린 040107	변선민 041019
이강립 610326	신예준 230106	신정현 040614	김소연 040427	신은서 960320
이승연 670912	최도준 230507	한현욱 971214	최원서 041025	■CHPLUS
이정희 661227	최인광 강소애			김대환 920427
장요한 840202	■양재	■대학청년	■하늘	
유아 고에서 231009	■양재	■하늘	박유민 030317	■SNS
고승찬 최예지	박정운 580909	박서진 040610	최은성 050218	강규리 971019
구도윤 220126	박종안 690603	박진서 040321	최은형 010414	
구동현 김미선	박형룡 730818	손민정 990504	입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세례 간증



/ 장요한 성도(성동광진공동체)

나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장남이었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몸만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었다. 대학생, 성인이 되어서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에 돌아와 주일 아침에 몸만 교회에 나가 자리만 채우고 오는 날이 허다했다. 예배는 그저 내가 부모님을 위해 가정에서 해야 할 의무로만 여겨졌다. 그렇게 ‘종교만 기독교’인 사람으로만 살다가 취업 이후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다. 그때 나는 퇴근하면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중예배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나님만이 내게 참 평안과 위로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이 내가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은혜와 축복임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또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게 되었다. 다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들에 한발씩 담그고 살았다.

5년 전 회사가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매일 새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야 했다. 퇴근하고 밤늦게 귀가해서 새벽 출근을 위해 바로 누워야 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시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기에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마침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모임이 제한받던 시기였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며 설교를 듣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성경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생전 해 본 적 없는 통독과 QT를 하게 되었다.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했던 4년이던 시간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하셨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원하셨다. 내가 그토록 놓지 못했던 세상적 만남과 거기서 나누는 비본질적인 대화의 공허함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해주셨다. 본질적인 것에 시선을 더 두게 하셨다.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데에만 집중하고 영생을 누리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 도무지 선택한 것 하나 없는 내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편안해지고, 살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악한 이 세대의 흐름에 휩쓸려 몸과 마음을 빼앗길지 모른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바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정길우 순장(신용산공동체)

순장학교 개강예배를 돌아봤더니 우리 조가 가장 나이가 많았다. 조금은 충격이었고, 알 수 없는 자책감이 몰려왔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한 지 23년 만에 순장 교육을 받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순장님들의 활기찬 모습이 많이 부러웠다.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는데 나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알 수 없는 회한이 몰려왔다.

온누리교회의 다섯 가지 영성에 대한 교육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래서 다섯 가지 영성(공동체, 말씀, 성령, 선교, 섬김)을 나의 신앙과 연결해서 점검했다. 내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상태인지 반문했다. 너무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을 초청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닫혀 있던 내 마음에 회개의 문을 열어 주셨고, 그날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다. 회개 이후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깨달았다. 아내와 함께 시작한 성경통독은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통로였다.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생각났고,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 보였다. 친구들에게 교회에 다닐 것을 권면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운 변화였다.

얼마 전부터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우리 순에 있는 사랑부 자녀를 만난 이후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아내에게 내 마음을 알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며 “사랑부에서 함께 섬기자”고 했다.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순장학교에서 순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알게 되었다. 진정한 리더는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리더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리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이진호, 강영주 부부(가정사역공동체)

나는 젊은부부학교를 피하고 싶었는데, 아내의 성화를 못 이겨 오게 되었다. 그런데 참여하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듯했다. 첫 프로그램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해”인 반면,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였다. “미안해”가 “사랑해”로 바뀌는 게 이 학교에서 얻어야 할 미션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를 삶의 경험을 통해 일러주신 조호영 목사님, 서로의 이해를 도와주신 유쾌한 김성목 장로님 한은경 권사님 부부,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기훈 목사님, 자신의 상처와 치유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신 박은정 센터장님 강의가 모두 인상 깊었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일심동체 된 어느 선교사 부부를 이상으로 그리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부를 보다!

다. 정작 내 아내가 어떤 성향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는 우선순위 밖이었던 것 같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아내와 나의 다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모두 긍정적으로 느껴졌다.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많이 배운 것 같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부를 볼 수 있었다. 서로 할키고 상처받아 토라져 있는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셨다.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열정적으로 섬겨 주시는 선생님들도 인상 깊었다. 협조적이지 못했던 나를 애정으로 끝까지 품어 주신 조장님과 조원들에게 감사하다. 우리 부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여기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열매로 맺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사랑이란 가장 고귀한 만큼 가장 어려운 단어인 것 같다. 일평생 배우더라도 한참 부족한 게 사랑인 것 같다. 그래도 젊은부부학교에서 사랑을 더 알게 되었다. 미래에는 사랑을 더 깨닫게 될 것을 확신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스태프 간증



/ 김지나 성도(천호동성결교회)

지난해 두란노어머니학교 123기와 124기를 섬길 때 나의 고백은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였다. 당시 건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두란노어머니학교 130기는 시간도 괜찮고, 건강도 좋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니학교 스태프 미팅을 시작하면 서부터 계속 일이 생겼다. 제부의 수술과 여동생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조카를 우리집에서 돌봐야 했다. 하나님께 “네”하고 대답했을 때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과 여동생 일로 낙심했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우리 스태프들의 기도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줬다.

기도의 불꽃이 계속 타올랐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예비된 지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원자 33명을 보내주셨다. “33명의 스텝이 일대일로 케어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기도했던 대로 정확하게 채워 주셨다. 우리 안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를 경험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셨다. 지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건강한 성경적 어머니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도왔다. 지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 가정세를 우는 온유하고 안정된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벌써 기대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130기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상황과 환경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되고 건강해서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목도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지원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힘든 데 그런 걸 왜 하니?”라고 하셨을 부모님이 오히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고, 남편은 오가는 길마다 불평 없이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장로칼럼

악한 자의 형통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이화영 장로
(분당A공동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

함은 무슨 까닭이니까?”(렘 12:1).

우리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말이다. 왜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길은 왜 그렇게도 형통한지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을 잘 알기에 나는 토요일 아침이면 무조건 아내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어느 날은 춘천으로 떠났다. 춘천 호반 길을 달려서 닭갈비 골목으로 들어서면 대기표를 받고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집이 있다. ‘춘천명물닭갈비’라는 간판이 세워진 집이다. 그런데 그날은 대기표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았다. 웬일인가 싶어 둘러봤더니 큰 홀이 그날따라 썰렁했다. 무슨 사고가 있었나 싶어서 종업원에게 물었다.

“우리 사장님이 사모님 따라 교회에 갔다와서는 술도 안 팔고 일요일에도 문을 닫아요!”

그제야 벽 여기저기 붙어있는 ‘우리 업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닭갈비는 대부분 술을 곁들이는데 술을 팔지 않는다니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어들 만했다. 게다가 주일에는 줄서기조차 포기할 정

도로 사람들이 많은데 쉬기까지 한다니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상황을 보면 ‘할렐루야!’라며 감탄이 나와야 하는데, 이 믿음 없는 장로의 머리가 빙하고 아파지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라는 걱정이 앞섰다. 그리고 그 집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더 자주 방문했다. 그러나 갈 때마다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까? 불어있던 안내문들이 사라지고 여기저기 테이블 위에 소주병들이 예전처럼 놓여 있었다. 그 사이 앞집은 가게를 크게 확장했다.

이런 일을 마주할 때면 ‘왜 하나님의 계산기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까?’라고 따져 묻게 된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 인간적인 설명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답을 구하기는 커녕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게 된다. 다만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려 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사 55:9).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신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고, 의와 불의가 함께 있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세상과 부대끼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가 정말 어렵다. 세상의 계산 방식대로 살면 승리한 삶이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대로 살면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조카 못에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고 말했던 바보 같은 짓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잃어버린 빈손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넘치도록 채워진 우리 손을 보고 계실 것이다.

“...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권사칼럼

서로를 따스하게 대하자!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내가 오랫동안 상담한 자매가 있다. 그 자매는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이었다. 그 자매의 남편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다. 어려서부터 장남노릇 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다.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다. 기술을 배

워서 지금은 그 분야에서 인정해 주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자매는 남편이 자기를 속여 결혼했고, 인식하기 짝이 없고, 잔소리가 많으면서 남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오랜 시간 자매를 상담했지만, 부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그 자매에게 접근 방법을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날에는 무조건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차려 놓으라고 부탁했다. 석 달만 꼭 참고 남편이 언제 들어오든지 따르고 풍성한 밥상을 대접하라고 했다. 자매는 나의 제안을 귀담아듣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시도했다.

처음에는 남편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떤 때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면서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자매는 늘 웃는 얼굴로 “당신 종일 힘들었을 텐데 맛있게 드세요”라면서 음식을 대접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렇게 묵묵히 섬기기를 계속했더니 남편의 반응이 달라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은 남편이 일찍 들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며 자매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 자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남편이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힘든 것이 참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힘든 건 배고픈 거였어”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은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다. 가난한 형편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 새어머니가 들어 오셨는데 차별을 심하게 했다. 새어머니는 공장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온 전실 자식인 남편을 외면하고 모른 척했다. 남편은 늘 주린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그때 혼자 많이 울었다고 한다. 자매는 그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 주면서 “당신 정말 멋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다니 참 경스러워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라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되었다.

미국의 가트만 박사가 2011년 부부 갈등을 연구했다. 그 결과, 부부 갈등 69%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남녀의 차이, 성장 배경의 차이, 상처, 채우지 못한 욕구 등이 원인이었다. 연애할 때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혼하면 돕는 배필보다 바라는 배필이 되어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채워줄 것을 바란다.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심리학에서는 결혼 적령기가 되면 어머니 품이 그리운 종각과 어머니가 되고 싶은 처녀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주장한다. 아내에게 남편은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아들이며, 남편에게 아내는 심리적으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자랐다.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장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신앙에세이

이샘 선교사
(OCC공동체)

〈온누리신문〉에서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 모집 공고를 보는데,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21년 차 선교사지만,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아들 간병에 늘매여 산다. 시간이 돼 호스피스 전문봉

사자 교육에 참석했다.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 팀장님과 목사님, 스태프들과의 만남이 나에게 선물 같았다. 나는 사역자 조에 속해 있었다. 〈온누리신문〉에서 읽은 간증의 주인공인 U국 선교사님이 같은 조에 계셨다. 아들로 인해 가지 못하고 있는 사역지의 선교사님이 같은 조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에서 팀

프 마사지 교육과 실습, 사별자 가족 돌봄 강의 등이 매시간 감동이었다. 내가 아들 사연으로 쓴 책과 방송 그리고 내가 성악 전공자라는 게 알려져 3주차에는 특송을 하는 특권도 주어졌다. 특히 3년 만에 열리는 온누리요양센터에서의 실습은 감격 그 자체였다.

나는 중학교 시절 아버지를 체장암으로 여의었고, 선교사로 헌신한 뒤에는 선교지에서 딸, 그 이후 어머니와 작은 오빠와 사별했다. 매일 언제 보낼지 모르는 아들 예준이의 미토콘드리아근병증의 아픔과 퇴행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남편은 선교사에게 주어진 사역을 흠없는 모습으로 분에 넘치도록 섬기고 있었기에 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오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지내왔다. 선교지에서 같은 질환으로 딸을 보내고, 아들의 아픔과 퇴행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기도로 신실하게 함께해 온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 동역자들 덕분에 나도 사별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싶다는 소망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었다.

사탄은 아들 또한 딸과 같이 언제 보낼지 모르는 큰 두려움을 정말 잘 알고 있었다. 선교지에서 딸을 보낸 그날의 위기 상황이 아들에게도 계속 찾아왔다. 가래와 호흡곤란으로 보낸 그 새벽처럼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데도 굳은 가래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의 입원 치료로 인한 4주차 외에는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 팀장님과 스태프들, 조원들의 기도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온누리요양센터 어르신들을 만났던 날, 2018년 12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다. 늘 아들 간병에 매여 한국에 있음에도 자주 뵈 수 없었던 어머니께 못다한 사랑을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큰오빠는 암이 재발했고, 지난해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은 딸의 기일 바로 전 날이었다. 남편이 나에게 ‘

고난 전문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장 병들고 악한 자들의 가족을 섬기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었다.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대부분 호스피스 환자 가족을 돌보고 싶어서 참석한 사람들은 비슷한 아픔을 겪어낸 이들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했다. 가장 악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픔과 고난의 이야기인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픈 자들의 친구이자 위로자로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오늘의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 진정한 위로자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상처 입은 치유자, 진정한 위로자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운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3:00 선교관 301호 /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
관 1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1:00 선교관
ACTS29홀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4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5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운유흐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CMN 라파티م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티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장로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자격: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온누리교회 장로로 65세 이하
문의: 박일면 총무(010-3708-5781)

서빙고 순정학교스쿨
일시: 3월 31일~6월 9일 (11주간)
대상: QT스쿨과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로서 공동체 담당목사 추천을 받은 성도
접수: 3월 19일 (화)까지 목회 행정실 제출
방법: 신청서, 신청비 5만 원, 공동체 담당
목사 서명
문의: 정경일 간사(02-3215-3220)

포에버성가대원 모집
자격: 찬양을 사모하는 60세 이상의 온누
리 남녀 성도
연습: 매주 수 10시, 일 2시 신관 101호
Act29실
문의: 010-4338-4151(타캠퍼스도 신청 가능)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운유흐(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운유흐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운유흐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관사(010-3285-1726)

CMN 토보티م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진, 난민 의료지
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영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한국어선교학교 12기 개강
대상: 국내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교
육하기 원하시는 분
일시: 3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
시(10주간)
장소: 양재 두란노홀, Zoom
신청: 아이케어
문의: 장성수 팀장(010-6652-3596)

로잔대회 사무행정 계약직 간사 모집
자격: 한컴 및 MS-Office 필수, 경력직
및 영어 가능자 우대
기간: 3~12월(총 10개월)
근무: 주 5일 9시~18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l4seoul2024@gmail.com
문의: 070-4940-4242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를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
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
북민) 11:00 운유흐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
터 301호/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
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
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간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간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불산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주수일 정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사부			
• 알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کل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김승수

● 부목사(전임)
김미향

● 부목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 전도사(파트)
김정모



CGN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넘치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특별한 이벤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EVENT 1

70만 축하 댓글 이벤트!

CGN 70만 축하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댓글을 남겨 주신 분들 중 7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 드립니다

참여방법

- STEP 1** CGN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다 
- STEP 2** CGN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70만 축하 영상'에 축하 댓글을 남긴다
- STEP 3** 구글폼으로 댓글 캡처본을 제출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참여 완료!



시상부문

<커피 기프티콘>



투썸플레이스
아이스 바닐라 라떼

EVEN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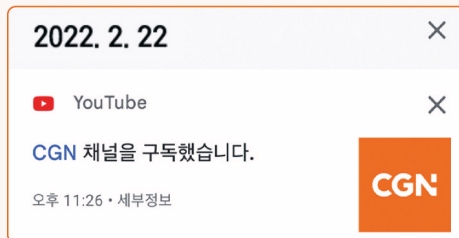
구독자를 찾아라

CGN 구독자 中
특이한 구독 날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참여방법

- STEP 1** 커뮤니티 링크를 통해 구독 활동 페이지로 이동하여 내가 CGN을 구독한 날짜를 캡처한다



- STEP 2** 구글폼으로 캡처본을 제출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참여 완료!

시상부문

<함께했상>



갤럭시 워치6
44mm

<새로왔상>



네스프레소 버추오
플러스 캡슐커피머신

<의미있상>



허니콤보
웨이 감자 세트